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 士 學 位 論 文

丹靑文樣을 應用한 바디페인팅 作品硏究

- 寶物 로 지정된 寺刹에 나타난 丹靑文樣을 中心으로-

2011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 티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專 攻

黃 住 鉛

HANSUNG UNIVERSITY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崔喜子

丹靑文樣을 應用한 바디페인팅 作品硏究

- 寶物 로 지정된 寺刹에 나타난 丹靑文樣을 中心으로-

A Study on Body Painting Works applied Dancheong Patterns.
-Focused on Dancheong patterns which appear in the Temple assigned as National Treasure-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 티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專 攻
黃 住 鉛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崔喜子

丹靑文樣을 應用한 바디페인팅 作品硏究

- 寶物 로 지정된 寺刹에 나타난 丹靑文樣을 中心으로-

A Study on Body Painting Works applied Dancheong Patterns.
-Focused on Dancheong patterns which appear in the Temple assigned as National Treasure-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 티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專 攻
黃 住 鉛

黃 住 鉛 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印

審 査 委 員 _____印

HANSUNG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 1 절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 ····· 5
1. 바디페인팅의 의의 ····· 5
2. 바디페인팅의 역사와 유형 ····· 6
1) 바디페인팅의 역사 ····· 6
2) 바디페인팅의 유형 ····· 7
(1) 현대미술 유형 ····· 7
(2) 자연소재 및 현대디자인 유형 ····· 10
(3) 전통예술 유형 ····· 12
3.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 15
1) 에어브러시에 의한 표현기법 ····· 15
2)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표현기법 ····· 15
3)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기법 ····· 16
4) 회화적 기법 ····· 17
5)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 기법 ····· 17
6) 3D 디지털 기법 ····· 17

제 3 장 단청에 관한 고찰 ····· 21

제 1 절 단청의 개념과 역사 ····· 21
1. 단청의 개념 ····· 21
2. 단청의 역사 ····· 22

제 2 절 단청 문양의 기본 요소와 종류 ····· 25
1. 단청 문양의 기본 요소 ····· 25
2. 단청 문양의 종류 ····· 27
1) 머리초 ····· 27
2) 별지화 ····· 30
3) 금문양 ····· 31
4) 천정문양 ····· 33

제 3 절 건물의 성격에 따른 구분 ····· 34
1. 사찰 건축의 단청 ····· 34
2. 궁궐 및 관아 건축의 단청 ····· 36
3. 유교건축(향교, 서원)의 단청 ····· 38

제 4 절 단청 문양을 디자인에 접목한 사례 ····· 40
1. 단청 문양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 40
1) 단청 문양에 나타난 아트메이크업 특징 ····· 40
2) 단청 문양을 활용한 니트 디자인 ····· 42

제 4 장 작품제작 ····· 45

제 1 절 단청 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 ····· 45
1. 작품-1 봉명조양(鳳鳴朝陽) ····· 46
2. 작품-2 조양봉황(朝陽鳳凰) ····· 50
3. 작품-3 패옥(佩玉) ····· 54
4. 작품-4 요발(鐃鈸) ····· 58

제 5 장 결 론 ····· 62

【참고문헌】 ····· 64

ABSTRACT ····· 67

【 표 목 차 】

[표-1] 단청문양의 기본요소 ····· 25

HANSUNG UNIVERSITY

【 그 림 목 차 】

<그림 1> 피카소 "거울앞에선 아가씨" ····· 9
<그림 2> 피카소 "거울앞에선 아가씨" 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 9
<그림 3> 클림트 "베토벤의 벽화의 '전세계를 위한 키스' 부문"(1902) ····· 9
<그림 4> "베토벤의 벽화의 '전세계를 위한 키스'부문"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 9
<그림 5> 키스해링(1958~1990) ····· 10
<그림 6> Graffiti 이미지를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 10
<그림 7> 현대건축물 소재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 11
<그림 8> 자연 소재를 응용한바디페팅 ····· 11
<그림 9> 동물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 11
<그림 10> 곤충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 11
<그림 11> 광고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 12
<그림 12> 의복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 12
<그림 13> 한국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 13
<그림 14> 중국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 13
<그림 15> 일본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 14
<그림 16> 인도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 14
<그림 17> 전통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 14
<그림 18> 전통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 14
<그림 19>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바디페인팅 ····· 18
<그림 20>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바디페인팅 ····· 18
<그림 21> 컴퓨터 그래픽기법의 바디페인팅 ····· 18
<그림 22> 컴퓨터 그래픽기법의 바디페인팅 ····· 18
<그림 23> 오브제 활용 바디페인팅 ····· 19
<그림 24> 오브제 활용 바디페인팅 ····· 19
<그림 25> 회화적 기법의 바디페인팅 ····· 19

<그림 26> 회화적 기법의 바디페인팅 ····· 19
<그림 27>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를 이용한 표현 기법 ····· 20
<그림 28>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를 이용한 표현 기법 ····· 20
<그림 29> 3D 디지털 기법의 바디페인팅 ····· 20
<그림 30> 3D 디지털 기법의 바디페인팅 ····· 20
<그림 31> 병머리초 - 호리병문양 1 ····· 28
<그림 32> 병머리초 - 호리병문양 2 ····· 28
<그림 33> 장구머리초 - 좌우대칭 장구형태 ····· 29
<그림 34> 연화머리초- 연꽃문양 ····· 29
<그림 35> 주화머리초 - 4방형 감꼭지 문양 ····· 29
<그림 36> 녹화 머리초 - 녹색의 꽃무늬 문양 ····· 29
<그림 37> 금천사 약사전 대량 ····· 30
<그림 38> 안성 청룡사 대웅전 ····· 30
<그림 39> 삼지창금 ····· 31
<그림 40> 쌍고리줏대금 ····· 32
<그림 41> 십자금문 ····· 32
<그림 42> 솟을줏대금 ····· 32
<그림 43> 창경궁 명정전 천장 ····· 33
<그림 44> 송광사 대웅보전 보개천장 ····· 33
<그림 45> 사찰의 단청(동화사 칠성각 전경) ····· 35
<그림 46> 사찰의 단청(동화사 칠성각 단청) ····· 35
<그림 47> 궁궐의 단청(경복궁 근정전 전경) ····· 37
<그림 48> 궁궐의 단청(경복궁 근정전 단청) ····· 37
<그림 49> 향교의 단청(광주향교 전경) ····· 39
<그림 50> 향교 단청(광주향교 단청) ····· 39
<그림 51> 봉황문 ····· 42
<그림 52> 귀면문 ····· 42
<그림 53> 머리초 연화문 ····· 44
<그림 54> 포벽초 연화문 ····· 44

<그림 55> 궁창초 보상화문 ····· 44
<그림 56> 부리초 녹화문 ····· 44
<그림 57> 색상 ····· 47
<그림 58> 정수사 법당 전경 ····· 47
<그림 59> 정수사 법당 단청 ····· 47
<그림 60> 일러스트레이션 ····· 48
<그림 61> 색상 ····· 51
<그림 62> 석남사 영산전 전경 ····· 51
<그림 63> 석남사 영산전 단청 ····· 51
<그림 64> 일러스트레이션 ····· 52
<그림 65> 색상 ····· 55
<그림 66> 금산사 대장전 전경 ····· 55
<그림 67> 금산사 대장전 단청 ····· 55
<그림 68> 일러스트레이션 ····· 56
<그림 69> 색상 ····· 59
<그림 70> 내소사 대웅보전 전경 ····· 59
<그림 71> 내소사 대웅보전 단청 ····· 59
<그림 72> 일러스트레이션 ····· 60

<작품 1> 봉명조양 뒷면 ····· 48
<작품 1> 봉명조양 앞면 ····· 49
<작품 2> 조양봉황 뒷면 ····· 52
<작품 2> 조양봉황 앞면 ····· 53
<작품 3> 패옥 뒷면 ····· 56
<작품 3> 패옥 앞면 ····· 57
<작품 4> 요발 앞면 ····· 60
<작품 4> 요발 뒷면 ····· 6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국내 문화예술계는 격변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반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양적으로도 많이 팽창했고, 기존의 장르 개념으로는 묶일 수 없는 실험적인 작품이 대중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의 예술작품은 각 나라 고유성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자인 산업의 경우 한국 기와의 선이나 창살패턴, 도자기 문양 등 다양한 전통문양이 많은 영감의 소재로 쓰여 의류와 디자인 소품을 넘어 첨단산업인 IT제품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통문양은 민족의 정서와 얼이 깃들어 있는 미술자료로서 다채로운 색상의 장식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은 우리문화의 주체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통해 현대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문양은 세계적인 예술로서 발돋움할 기초를 다졌으며 전통의 재해석과 개선, 융합 등 각각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새로운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전통문양은 한 민족문화의 소산으로 각 시대 대중들의 풍습이나 정서를 상징하며 이러한 표현은 한 민족의 보편적인 미의식으로 계승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미의식은 건축양식, 공예, 미술 등의 다양한 형태의 미적표현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전통예술작품에서는 일정한 문양과 형태가 나타나고 전통문양 자체가 하나의 미적표현으로 발전해왔다. 이처럼 전통문양은 현재도 계승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전통문양은 민족의 동질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는 중요한 문화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로도 거듭날 수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승되는 전통문양에 대한 연구는 전통의 미적 특징을 찾아내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문화 주체성 정립에 있어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며, 세계무대에서 독창성과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그 동안 한국의 전통문양은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현대와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왔고, 특히 현대미술은 서양미술과 동일시되면서 전통문화보다는 서양문화에 기반한 기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바디페인팅의 경우 그 예술적 파격과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문화와는 다른 생소한 예술로서 대중에게 인식되어왔다.

조형예술의 하나인 바디페인팅에서는 동양적인 색채와 모티브를 접목하기보다는 서양의 문양과 양식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선행 연구로 최희경(2009) 「포크아트 양식과 표현기법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연구」에서 포크아트 양식의 기법을 이용하여 바디페인팅에 접목하는 것을 다루었고, 이주영(2008) 「팝아트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에서는 팝아트를 응용하였다.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또한 아르누보 문양을 다루었다. 이처럼 바디페인팅은 서양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주로 연구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인 단청문양을 이용하여 바디에 접목한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미의식이 예술적으로 반영된 다양한 우리의 전통문양 중에서도 전통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전세계 건축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색채 예술인 단청문양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단청문양의 예술적 가치를 바디페인팅에 접목시켜 예술적이고, 감성적이며, 창의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바디페인팅 작품유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단청과 바디페인팅에 대한 다양한 문헌과 기존 연구사례를 고찰한다. 선행연구자인 박혜선(2001)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와 김금란(2008) 「바디페인팅의 국내 연구 동향 및 발전방안」을 토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요소가 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 그 표현의 범위를 인간의 신체로 넓힌 미적 표현인 바디페인팅의 그 역사적 특성과 사람의 몸을 재료로 하는 미술형태인 퍼포먼스의 형태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다양한 표현유형과 재료와 기법에 대한 연구사례를 고찰한다.

단청의 역사와 단청의 원색적인 문양의 특징에 한 기존 연구사례를 고찰한다. 이러한 단청과 바디페인팅의 특징을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우선 바디페인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바디페인팅의 의의를 중심으로 개념과 정의, 역사를 파악한 후 사례를 중심으로 바디페인팅의 유형과 바디페인팅 표현 기법을 분석하여 바디페인팅의 미적표현 사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어서 단청에 대한 미적탐구로서 단청의 역사적 의의, 목적, 사상적 배경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단청문양의 종류와 그 상징적 의미를 종류별로 분석하여 이질적인 소재인 인체에 대한 표현 가능성을 점검 할 것이다.

관련 자료로는 문헌자료와 방송 관련 정기 간행물 및 신문, 인터넷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단청 및 바디페인팅과 관련있는 제반 선행 연구를 검토 할 것이다.

본 연구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에 이어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과 범위를 밝힌다.

제2장에서는 바디페인팅의 의의와 바디페인팅 역사 및 유형, 그 표현 기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단청의 개념과 역사, 단청문양을 분석하고 건물 성격에 따른 단청문양의 구분과 단청문양을 디자인에 접목한 사례를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건축사적 가치와 시각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보물로 지정된 사찰을 선정하여, 보물로 지정된 사찰의 특징 있는 단청문양을 모티브로 삼아 이를 응용하여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해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단청문양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의 의도와 방법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을 서술하고 본 작품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

1. 바디페인팅의 의의

배기혜(2009)「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에서는 바디페인팅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예술로서 인간의 내적 이미지 세계를 얼굴에서 신체까지 넓힌 미적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바디페인팅은 미술사조에서 살펴보면 개념미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공간적인 예술의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양식이고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인 신체 종합예술이 바로 바디페인팅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민령(2008) 「바디페인팅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소고 연구」에서는 바디페인팅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몸을 이미지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에 의해 어떤 예술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체에 표현되는 예술로 신체를 이해하고 예술세계와 성의 표출, 인간의 신성한 부분까지 재창조 내지 변형을 가능케 하여 성적매력을 강조해주고, 신체를 보호해주는 의복의 역할까지 가능하게 해 준다고 밝혔다.

이렇듯 인체를 화폭으로 하여 디자인, 색채, 조형 등의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예술로서의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몸을 이미지화시켜 재구성하는 종합예술이자 신체를 보호하는 의복의 역할을 넘어 최근에는 광고, 시위 등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이나 조각처럼 영구 소장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순간만을 포착하는 짧은 생명력때문에 더 매력을 발산한다. 바디페인팅 작품은 판화같이 반복하여 찍을 수도 없고, 그림처럼 오래도록 보관을 할 수도 없다. 동일한 아티

스트가 같은 기법으로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순간예술이라는 점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정도로 높은 주목성이 바디페인팅의 매력이자 그 예술적 의의라고 하겠다.

2. 바디페인팅의 역사와 유형

1) 바디페인팅의 역사

바디페인팅은 인간이 지구상에 정착하면서 생존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위 중의 하나로서 인류가 언제부터 자신의 몸에 색을 이용하여 칠함으로써 창조적 충동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선사시대로부터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장식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랐다.[1)]

바디페인팅은 인간이 주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장했다는 가설이 있으나,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몸에 문신이나 상처 또는 치장을 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은 벽화와 유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유물을 통해 확인된 색상은 빨강색, 노랑색, 검정색, 흰색 등 비교적 다양했으며, 염료는 흙에서 나온 광물, 황토를 주로 사용하였다.[2)] 또한 신체를 통한 자아표현으로 외모를 바꾸거나 부족 간의 구별을 위해서 또는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되었다. 또 시대가 지날수록 더 세련되어졌고 그 시대의 예술적 표현물로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다.[3)]

원시 바디페인팅은 발전, 쇠퇴를 거듭해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비로소 문화예술로 표현되기 시작했는데 1966년 아트디렉터인 리트 마틴(Ritt, Martin, 1914~1990)에 의해 재시도의 시작으로 발전돼 새롭게 현대

---

1) 박혜선(2001), 「조선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 최성민(2002),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응용한 Body painting 연구」, 대구대학교 사진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3) 한명숙(2006), 『The Body Art』, 서울 : 청구문화사, p.10.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영상화하고 있으며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패션쇼, TV광고, 기업홍보 등 상업예술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 바디페인팅의 유형

바디페인팅은 예술의 다양한 장르와 많은 작품을 기반으로 응용되고 표현돼 그 형식과 유형이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응용된 소재로 그 동안 발표된 작품의 수와 작품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하여 현대미술, 자연소재 및 현대디자인, 전통예술로 구분하였다. 현대미술 유형은 김금란(2008) 「바디페인팅의 국내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찰하였으며, 자연소재 및 현대디자인은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로이 유형을 분류하였고, 전통예술 유형은 조은숙(2004)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와 박혜선(2001)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를 선행연구로 참고하여 각각 유형화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현대미술 유형

김금란(2008)은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유형은 현대미술 사조와 그 사조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작가의 작품에 따라 구분하였다. 김영태(2009)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라피티(Graffiti)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된 그라피티까지 현대미술 유형으로 포괄해 구분하였다. 특히 대상을 파편으로 분해하여 표현하는 입체주의와 형상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나 내면을 표현하는 상징주의와, 자유분방한 색채와 구성의 감각이 돋보이는 그라피티는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추상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함께 유형화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입체주의(cubism), 그 중에서도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작품은 많은 바디페인팅 작품에서 응용되었는데 그의 급진적인

공간적 구성은 바디페인팅에 응용하였을 때 다양한 표현과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재로 피카소의 회화 <그림 1> 를 바디페인팅에 응용한 이현주의 작품<그림 2>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였다.

둘째 상징주의, 상징주의의 대표작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는 심미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작가로서 그의 작품속의 패턴은 원,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나선형으로 나타나며 클림트는 음과 양, 곡선과 직선, 난색과 한색의 대비를 통하여 그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패턴과 색상의 사용법을 통하여 그의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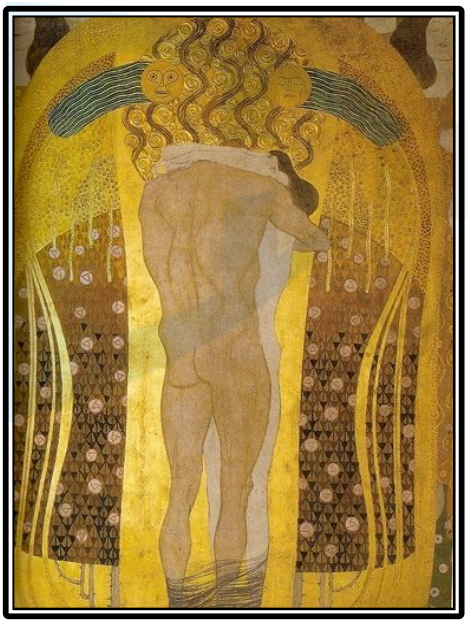
김예성(2003)은 「아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이를 활용한 작품으로 <그림 4>을 제시하였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작품은 클림트의 베토벤의 벽화 “전세계를 위한 키스” 부문인 <그림 3>이며 클림트 작품에서 보여주는 아르누보적인 화려함과 관능적인 분위기, 장식성에 분석 초점을 맞춘 사례로 분류하였다.

셋째, 그라피티 미술의 선구자인 키스해링(Keath Haring, 1958~1998)은 스스로의 그라피티 작품에 이용하는 표현방법을 <그림 5>을 이용하여 바디페인팅 작품을 직접 제작하여 <그림 6>의 독특한 표현 형태로 단순하며 구성적이고 원시시대의 작품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HANSUNG UNIVERSITY

<그림 1> 피카소 "거울앞에선 아가씨"
http://blog.naver.com/csoomin/40111906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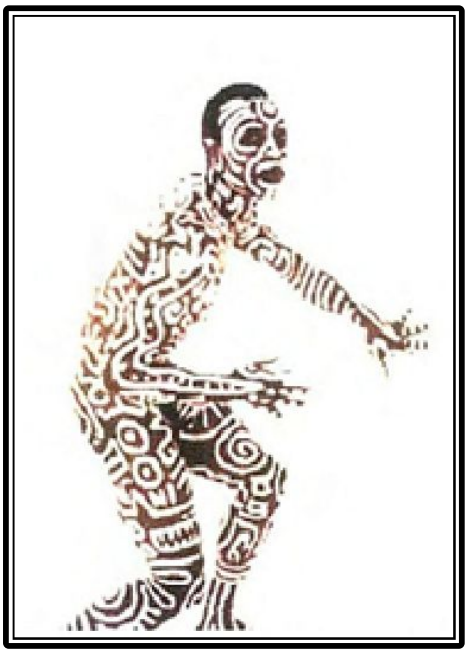
<그림 2> 피카소 "거울앞에선 아가씨"
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그림 3> 클림트, "베토벤의 벽화의
'전세계를 위한 키스' 부문"(1902)
http://blog.naver.com/hellosmile79/18616365

<그림 4> "베토벤의 벽화의
'전세계를 위한 키스'부문"
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그림 5> 키스해링(1958~1990)
http://www.haring.com



<그림 6> Graffiti 이미지를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2) 자연소재 및 현대디자인 유형

본 연구에서는 바디페인팅이 대중화되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경, 사물을 활용하여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작품에 응용하는 유형과 패션, 광고 등에서 표현되는 현대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7>에 나타나는 소재유형은 배경 건축물이나, <그림 8>처럼 자연배경을 활용하여 소재와 인체예술로 표현된 바디페인팅 작품을 일체화시키는 유형이다. <그림 9>는 동물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은 아마추어 작품에서도 흔히 나타나며, <그림 10>은 실제와 같이 표현하는 유형과 곤충의 특징을 단순화시킨 작품으로 구분된다. 또한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패션산업과 광고 등 상업적 현대디자인 작품에서도 바디페인팅 작품이 나타난다.

<그림 7> 현대건축물 소재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그림 8> 자연 소재를 응용한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9> 동물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그림 10> 곤충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11> 광고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그림 12> 의복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http://www.bodypainting-festival.com

(3) 전통예술 유형

바디페인팅에 자주 나타나는 유형으로 전통예술의 문양과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전통예술 중에서도 동양의 전통예술은 특히 그 문양의 디자인이 다양하여 바디페인팅 작품에 더욱 많이 응용되었다. 동양의 전통예술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한국 작품의 경향은 <그림 13>처럼 상체 중심의 작고 평면적인 디자인이 많고 정적이다. 부드러운 형과 식물문양, 기하학문양, 도깨비문양, 동물문양과 태극문양 등의 전통문양에 오방색이 주로 사용되며 소극적이지만 회화적 기법이 많다.

중국은 <그림 14>처럼 직선적인 형태로 면보다는 선을 강조하였다. 동물문양, 식물문양, 기하학문양, 불교문양이 많이 나타났으며, 색상의 표현이 제한적이지만 붉은색과 오방색 사용이 많았다.

일본은 <그림 15>처럼 옷을 입고 있는 듯한 형태에 영웅문, 문자문, 동

물문, 식물문, 기하학문양, 귀문 등 다양한 문양이 나타난다.

인도는 헤나 타투가 대표적으로 손과 발을 감싸는 듯한 형태로 페이즐리문양 <그림 16>과 같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갈색 사용이 많고 디자인 기법, 오브제 기법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전통예술에서 많이 보여지는 소재와 이미지를 신체에 바디페인팅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아직까지 미 개척된 전통문양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바디페인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 17>, <그림 18>과 같이 기존의 소재나 현대디자인, 현대미술 작품유형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작품을 제작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림 13> 한국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그림 14> 중국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http://www.bodypainting-festival.com

<그림 15> 일본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그림 16> 인도적 이미지의 바디페인팅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그림 17> 전통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l43members/117527

<그림 18> 전통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3)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바디페인팅은 평면적인 회화적 색채를 입체적인 바디페인팅에 적용할 때 그 표면적 상이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와 깊이가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체의 피부의 땀과 모(毛)에 의한 채색의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여러 도구에 의한 표현기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1) 에어브러시에 의한 표현기법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표현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붓 터치와는 다르게 자로 잰 듯한 깔끔한 선의 마무리와 부드러운 음영 <그림 19>, <그림 20>와 같이 색조를 투명감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에어브러시에 의한 주된 표현기법은 섬세한 선의 표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 명암의 대비에서 잘 나타나며 바디페인팅에 에어브러시를 분사해서 색을 칠하기도 하고 원하는 모양을 스텐실하여 그것을 대고 그 위에 색을 입혀 원하는 모양의 페인팅을 하기도 한다. 에어브러시 바디페인팅은 옷과 같은 질감표현을 하는 페인팅 시 아주 편리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옷의 주름을 붓 터치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특히 스텐실을 활용할 경우 상업적 바디페인팅 표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홍보 이벤트에 페인팅을 할 경우에는 제품의 로고를 스텐실을 이용해 그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형태의 바디페인팅 작품을 다수 제작해야 할 경우에 스텐실 기법이 널리 이용된다.[4)]

(2)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표현기법

표현적 한계 때문에 직접 채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컴퓨터그래픽을 바디페인팅에 응용하면 다양한 기법의 표현이 가능하고 색채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작품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얻을 수 있고 바디페인팅의 즉흥적이고 신체적인 결점을 수정, 보

4) 송원길(2008),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연구 : 바디아트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완할 수 있고 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체에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방향과 형태들도 이미지를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그림 21>, <그림 22>는 어느 예술작품보다 신체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료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난 작품이다.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표현기법은 다양하게 접근하여 오랜 시간동안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토샵을 통한 여러 가지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은 효과적이다. 단, 지나치게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할 경우 그 예술성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5)]

(3)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기법

인체의 색을 입히는 것과 함께 오브제를 활용하면 바디페인팅의 표현범위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다. 현대의 바디페인팅은 자기의식과 개성의 표현을 강조하고 표현기법에서도 독창적이며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브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바디페인팅 작가들은 오브제를 이용한 작품 <그림 23>, <그림 24>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오브제의 소재로는 종이, 옷감, 깃털, 반짝이, 금속, 레이스, 비즈, 머드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재료도 제한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조형적이고 창의적인 표현효과를 주고 있다.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기법은 기존의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다양한 바디페인팅 디자인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6)]

5) 김금란(2008), 「바디페인팅의 국내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p.28.
6) 김금란(2010),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4) 회화적 기법

<그림 25>, <그림 26>은 바디페인팅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해 주로 자연물이나 대상을 형상화시켜 표현하며 주제 전달이 쉽고, 채색이 가능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색상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의 색채 감각이나 취향 등이 다양하게 작가의 의도에 맞게 표현된다.

(5)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 기법

<그림 27>, <그림 28>의 UV발광물감은 UV라이트(블랙라이트)에서 보다 선명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수성물감을 일컫는다. 일반조명에서도 색상을 보여주지만 UV라이트에서는 투명한 불빛으로 보이며 주로 무대 공연이나 쇼 형태에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6) 3D 디지털 기법

<그림 29>, <그림 30>은 3D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작품으로 신체 자체를 3D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후 그 굴곡된 형상에 따라 그 위에 작가가 의도한 이미지를 무늬 또는 낙서 등의 문신기법을 통해 신체에 그대로 새겨넣는다. 컴퓨터상의 정교한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3D 그래픽 작업을 프린트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투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스를 디지털 프린트, 빔 프로젝션, 모니터 등의 여러 출력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multiuse)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19>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0>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1> 컴퓨터 그래픽기법의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fzine/2748

<그림 22> 컴퓨터 그래픽기법의바디페인팅
http://blog.naver.com/dkdbfpel/50071585012

<그림 23> 오브제 활용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4>오브제 활용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5> 회화적 기법의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6>회화적 기법의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27>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를 이용한 표현 기법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8>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를 이용한표현 기법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9> 3D 디지털 기법의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livejob/218283

<그림 30> 3D 디지털 기법의 바디페인팅
http://cafe.naver.com/livejob/218283

제 3 장 단청에 관한 고찰

제 1 절 단청의 개념과 역사

1. 단청의 개념

일반적으로 단청이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색(黑色)의 오색을 써서 목조건축이나 석조건축 등을 장엄하게 하거나 조각품, 공예품 등에 채색하여 장식하는 서(書), 회(繪), 화(畵)를 총칭한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청이란 용어가 목조건물에 채색하는 개념으로 간주되면서 그에 따라 단청의 명칭도 여러 가지로 변해왔다. 진채(眞彩)·오채(五彩)·화채(花菜)·당채(唐彩)·단록(丹綠)·단칠(丹漆)·단벽(丹碧)이라고 별칭하며 단청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화사(畵師)·화원(畵員)·화공(畵工)·도칠공(塗漆工)·가칠장(假漆匠)이라 불렀으며 승려(侶僧)로서 단청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은 화상(畵象)·화승(畵僧) 또는 금어(金魚)라 불렀다. 단청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목조건물에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건물에만 쓰이는 단순한 도안화(圖案畵)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본래 예부터 왕실이나 나라의 길흉에 관한 의식이나 종교, 신앙적인 의례를 행하는 건물과 의기 등을 엄숙하게 꾸며서 일반 잡기와 구분하기 위해 의장하는 것을 통틀어 말해왔다.[7)]

단청의 본래의 목적은 나무의 조악(粗惡)한 면을 감추고, 부식을 막기 위하여 부재에 천연의 채료(彩料)를 칠하는 것이었으나 건축부재에 채료를 바르는 작업에도 인간 본성의 미의식이 발휘되어 아름다움까지 고려하여 각종의 문양이 개발되고 각각의 문양에 다양한 상징을 부여하여 각각의 건물의 용도에 맞는 장엄성과 위엄성을 보이기 위한 목적도 가지게 되었다.[8)]

---

7) 임영주(1991), 『단청』, 서울 : 대원사, p.4.
8) 정지윤(2009). 「단청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머리초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사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 단청의 역사

인류가 원시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채색그림이 출현하는 시기는 약 2만년 전이며, 이와 같은 예로는 동굴벽화 등이 전해지고 있다. 구석기시대 말기 원시 인류의 동굴 벽화나 바위에 새긴 그림들은 그 후 지상 건물에 그렸던 도식화된 단청과는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장식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단청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전된 단청은 오랜시간동안 계승되고 보충되어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민족적 감정을 풍부하게 반영하였으며 장식이론상으로도 가치 있는 유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9)]

이러한 우리나라의 단청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발전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건축 문화의 발자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축 문화는 동양 건축 문화권에 속하며 동양 건축 문화권 내에서도 중국계에 속한다. 주로 한민족에 의하여 시작된 중국계 건축 문화는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남쪽은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이르며 동쪽으로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 북쪽으로는 몽골,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역에 전파되고 발전하였다.[10)]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중국 대륙의 동쪽 연안에 돌출되어 있는 까닭으로 고대로부터 계속하여 중국계 건축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오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 문화와 융화되어 한국적인 건축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중국 건축에서 건축 장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현재의 자료로서는 한대(漢代)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이들 자료들은 모두 목실묘(木室墓)가 쇠퇴한 후 나타나는 석실묘(石室墓), 전실묘(塼室墓)의 벽면화이며 벽면의 부조 장식 또는 화상석(畵像石)이나 석궐(石闕) 등을 장식한 예 들이다. 이들 그림이나 부조 장식물들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등 도교적인 사상이 유행하였던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시기였으

9) 김동현(1976), 『단청의 역사와 시공』, 서울 : 공간사, p.17.
10) 윤장섭(1973), 『한국건축사』, 서울 : 동명사, p.21.

므로 일월성진(日月星辰)과 신선영괴(神仙靈怪), 사신영수(四神靈獸), 상서금수(祥瑞禽獸) 등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11]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의 유물로는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송평동 융수호반 유적지에서 발견된 채색토기가 있다. 그 표면에 산화철분을 채색한 홍도(紅陶)는 풍만한 어깨에 검은빛의 화판형선문(花瓣形線紋)이 삼중으로 겹쳐지면서 돌려 그려지고 있다.[12]

삼국시대에는 나무를 깎고 다듬어 짜 올리고 여러 가지 덩굴가지처럼 조각하여 장엄하였다. 지붕에는 기와를 얹어이으며 기둥에는 온갖 인동 덩굴무늬를 새기고 그려서 장식하고 목부(木部)나 벽체(壁體), 천장(天障) 등을 단청하는 새롭게 발달된 건축기법과 양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단청의 가장 오래된 실예는 현존하는 고대건축이 없으므로 삼국시대의 여러 벽화고분을 통하여 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구려 벽화 고분에는 당시의 건축양식과 단청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채색무늬가 남아있고, 그 당시의 지배계층의 생활상, 건축 서법, 신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의 색채의장 발달의 근원을 밝힐 수 있다.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남주작(南朱雀)·북현무(北玄武)를 배치한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오행사상의 색상방위나 사신수호(使臣守護)의 신수(神獸) 등이 표현되고 있으며, 고분 구조가 갖는 국제적인 성격으로 미루어 동양 3국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遠近) 인접(隣接)의 지역과도 관련되는 기법이라 생각된다.[13]

벽화에는 사신도 외에 묘의 주인공이 생전에 누렸던 영화의 자취가 그려지기도 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 등 천문과 신선 사상이나 불교 신앙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다. 건물을 그린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벽면과 출목(出目)을 둔 귀접(鬼接)이 천장에 기둥, 공포(栱包), 창방(唱榜) 등을 그리고 공포벽에는 비천상(飛天像), 기수(奇獸) 등을 묘사했고 출목에 시문이 되었으며 귀접이 천장 중공의 개석(蓋石) 바탕에는 만개(滿

11) 김동현(1995),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서울 : 발언, p.42.
12) 김갑연(1995), 「한국 사찰에 나타난 단청문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13) 장기인·한석성(1997), 『한국건축대계Ⅲ 단청』, 서울 : 보성문화사, p.54.

開)한 연화문을 그렸다. 또 기둥에는 용문을 채화하여 여러 옛 건축에서 보는 단청의 유례들과 비슷하여서 고구려 시대에 이미 목조 건축물에 단청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표현된 채색의 색조는 오늘의 단청색과 비슷하여 오늘날의 단청과의 연면성을 찾아 볼 수가 있다.[14]

이러한 삼국시대의 단청기법은 왕조를 달리했던 고려시대에 자연스럽게 인계되었을 것이며 고려초기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 기법을 그대로 이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건축양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고려 중기에 송나라에서 도입한 주심포(柱心包)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 말기 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도입한 다포(多包)양식이 그것이다. 전자는 기둥머리에만 가구되고 처마를 노출시키는 연등(煙燈) 천장이 된다. 보를 비롯한 옥개(屋蓋) 가구재의 대부분이 건물 안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공포가 기둥이 있는 위에만 배치되는 건물의 형식으로 이전보다 화려한 장식 의장이 가해진다. 후자는 격자(格子) 천장 등의 가구가 기본적인 양식이며, 보를 비롯한 모든 옥개 가구재가 천장에 감춰지게 되기 때문에 이들 부재에는 장식적 의장이 전혀 가해지지 않지만 대신 천장에는 전판에 문양을 넣어 장엄한다. 이 다포(多包) 양식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하여서 화려하고 웅장함의 극치를 이루는 양식이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인들은 궁실(宮室)을 수축하기를 좋아하며, 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구조는 둥근 기둥에 모난 두공(頭工)으로 되었고, 날아갈 듯 연이은 대마루는 울긋불긋 문채나게 꾸며졌다”고 기록하여 12세기 전후의 고려 궁전의 규모와 장엄성을 논한 다음 단청 장식의 호화로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15]

조선시대에는 주심포양식과 다포양식의 특징들을 혼용하면서 권위건축(權威建築)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침체되었다가 중기 이후부터 다포양식이 더 성행하였다. 의장(儀章)무늬와 색채의 화려함이 더해져 더욱 다양한 단청이 선보여졌다 하겠다. 조선 초기에는 역시 고려시대의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실이 현존하는 초기 건물에서 나타나고

14) 송연호(1984), 「우리 나라 단청문양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15) 임영주(1991), 전게서,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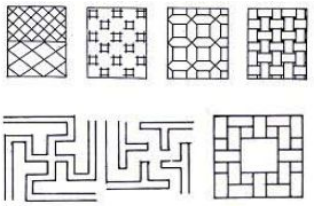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은 거의 전부가 임진왜란 뒤 인조대 이후에 재건된 것으로 단청의 유구가 풍부한 편이나 조선 초기에 이어지는 고격한 맛은 많이 감소되었고 다포계의 건물이 많아지면서 문양의 구성과 장식이 복잡하고 다채로운 색조의 대비가 극히 화려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문양들과 구성 형식이 고도로 세련되고 빈틈없이 짜여져 색채의 사용이 매우 표현적이며 으리으리할 정도로 다채롭고 명랑하다고 할 수 있다.[16)]

이러한 과거 문헌을 토대로 유추 해 볼 때 단청은 우리 건축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용되고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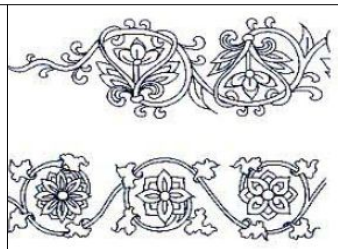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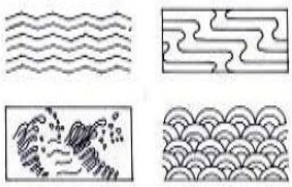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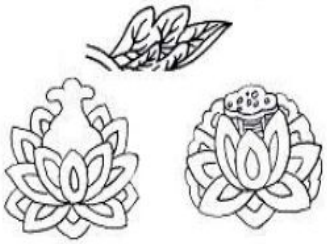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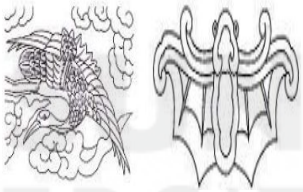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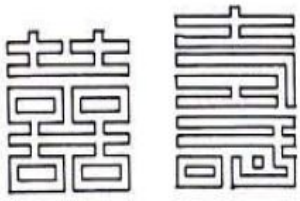
제 2 절 단청문양의 기본 요소와 종류

1. 단청문양의 기본 요소

우리나라의 단청문양의 기본요소는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주술적, 종교적, 토속적인 각종의 상서로운 문양을 총망라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건축 단청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것들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오행설, 천문지리, 토속신앙 등의 민족적 기호에 따라 단청문양으로 채택된 요소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표 1>[17)]은 민족적 기호에 따른 명칭과 이미지를 나열한 것이다.

기하문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뇌문, 태극, 나선형격자, 만(卍), 아(亞), 3원(삼보), 직선 등	

16) 임영주(1991), 전게서, p.61.
17) 이지은(2008), 「한국 사찰 단청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 인타샤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패션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15.

당초문	구름당초, 인동당초, 포도당초, 싸리당초, 국화당초, 상당초 등	
자연문	해, 달, 별, 구름, 화염, 파도, 기암, 산수, 십장생 등	
식물문, 화 문	소나무, 대나무, 난, 석류, 감꼭지, 영지, 불로초, 각종 수목 등 / 연꽃, 국화, 모란, 매화, 만다라(보상화) 등	
동물문	용, 봉황, 거북, 기린, 주작, 사자, 코끼리, 범, 박쥐, 나비, 잉어, 곤충, 물고기, 각종 금수(禽獸) 등	
종교문	불상, 보살, 선인, 비천, 12지, 성상(聖像), 불패, 귀면 등	
길상문 생활상	수복(壽福), 강녕(康寧), 희(囍), 부귀(富貴), 칠보 등 / 수렵, 어로, 농경, 전투, 무용, 연회, 주악, 문구, 악기, 필묵 등	

<표 1>

2. 단청 문양의 종류

단청의 문양은 한 채의 건물에서도 부재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수십, 수백 종의 단청문양들은 다 일정한 위치에 놓이게 규정되어 있다. 단청문양은 장식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4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문양은 머리초, 별지화, 금문양, 천정문양이라고 한다. [18]

1) 머리초

머리초는 평방, 창방, 대들보 등 주로 양끝 모서리에 그려 넣는 문양을 말한다. 머리초는 한 건물에서 동일한 부재의 모든 부분들에 한 본을 가지고 반영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첫눈에 잘 띈다. 또한 어떤 건물의 단청이나 거의 빠짐없이 적용되는 기본무늬이다. 머리초의 문양은 시대와 건물의 격식 및 도안가들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녹화, 연화, 주화, 장고머리, 병머리문양 순서로 배열하고 휘를 뻗친 것이 기본형식이다. 머리초 문양 중에서 녹화, 연화, 주화, 병머리, 장고머리 문양의 구성은 고려시대 이후 서서히 발전한 듯하고, 휘(暉)문양은 고려시대 단청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17세기 초 유구에서 그 간단한 형식이 나타나며 18-19세기에 들어와서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어 마침내 머리초 의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머리초의 휘의 의장 형식을 가지고 그 연대를 대략은 짐작할 수 있다. 머리초는 창방, 평방, 도리, 대들보 등의 양 모서리에 적용하는 외에도 기둥머리, 서까래 끝, 부연 끝에도 사용되었다. 머리초의 문양 조직이 부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대들보의 머리초는 삼면을 돌아가면서 문양을 넣어 측면과 밑면 문양의 관점, 그리고 광선의 작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양 조직과 색채의 조화를 창방이나 도리나 기둥머리의 머리초와는 달리하며 한 건물에 여러 형식의 머리초를 놓는 경우,

18) 이지은(2008), 전게논문, p.25.

문양 장식의 순차성과 변화를 주기 위해 부재가 클수록 복잡한 문양을 적용하고 멀리 보일수록 차례로 문양이 성글고 단순한 것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9] <그림 31>, <그림 32>는 머리초 전체가 병(甁)모양으로 된 것으로 병머리초라고 하며, <그림 31>은 온바탕온머리초와 반바탕반머리초가 연꽃무늬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림 32>는 온바탕온머리초가 연꽃무늬이며, 반바탕반머리초가 주화무늬로 이루어진 머리초이다.

<그림 33>은 머리초가 맞붙어진 형태로 전체가 장고(杖鼓)모양으로 된 것이다. <그림 34>은 주문양이 연꽃을 그려 넣는 연화머리초이며, <그림 35>는 주화머리초가 네 잎으로 된 꽃무늬가 주문양으로 하는 머리초이다. 마지막으로<그림 36>은 녹색의 꽃무늬를 그린 머리초를 녹화머리초라 한다.

<그림 31> 병머리초 - 호리병문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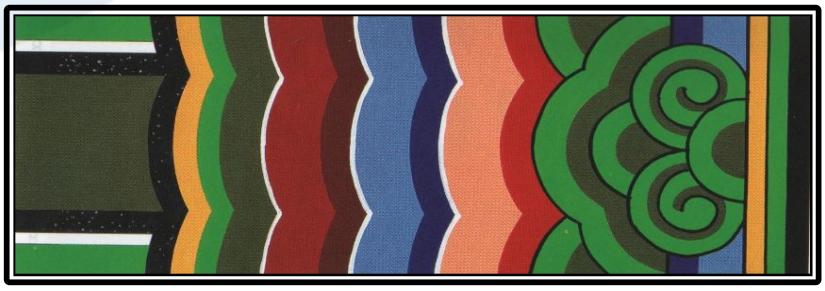
<그림 32> 병머리초 - 호리병문양 2

19) 정지윤(2009), 전게논문, p.35.

<그림 33> 장구머리초 - 좌우대칭 장구형태

<그림 34> 연화머리초-연꽃문양

<그림 35> 주화머리초 - 4방형 감꼭지 문양



<그림36> 녹화 머리초 -녹색의 꽃무늬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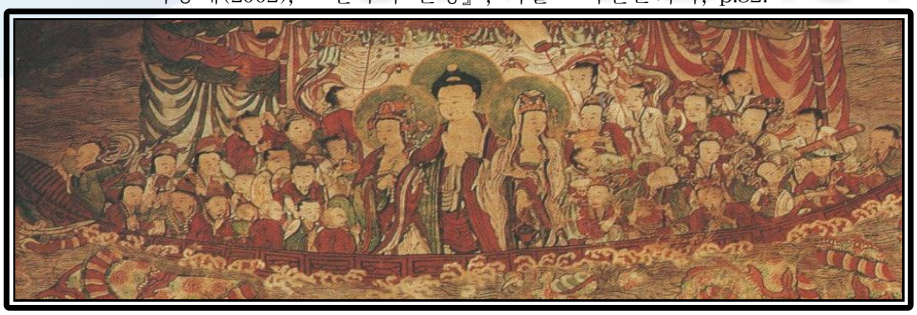
<그림 31~ 36> 곽동해(2002), 『한국의 단청』, 서울 : 학연문화사, pp.66~69

2) 별지화

별지화는 좌우 머리초의 중간부인, 도채되지 않은 공백부분에 회화적인 수법으로 그린 그림 또는 장식화를 일컫는다. 별지화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궁전 건축에는 별화를 그리지 않고 사찰 건물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소재는 불교경전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사찰 건축의 단청에서 별지화의 내용은 주로 사령수(四靈獸-용, 거북, 봉, 기린)를 위시하여 맹수(천마, 사자, 범) 또는 길조(학, 오리) 등의 상서로운 동물이나 사군자(매, 난, 국, 죽)나 화초 또는 경전, 불타에 관계되는 내용과 신선(神仙), 양속(良俗)을 그리기도 한다. [20] <그림 37>은 금천사 약사전 대량에 그려진 별지화로 사령수인 용이 별지화로 그려져있다.

<그림 38>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에 그려진 불타에 관계된 신선을 그린 별지화이다.

<그림 37> 금천사 약사전 대량
곽동해(2002), 『한국의 단청』, 서울 : 학연문화사,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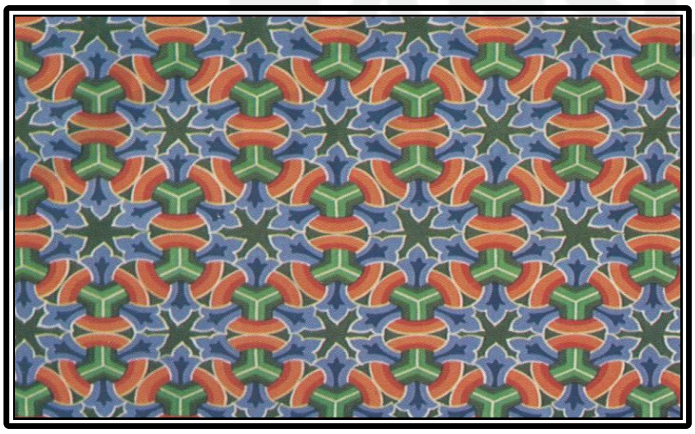


<그림 38> 안성 청룡사 대웅전
임영주(1991), 『단청』, 서울 : 대원사, p.77.

20) 송영희(2010),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수업 방안 연구 : 단청문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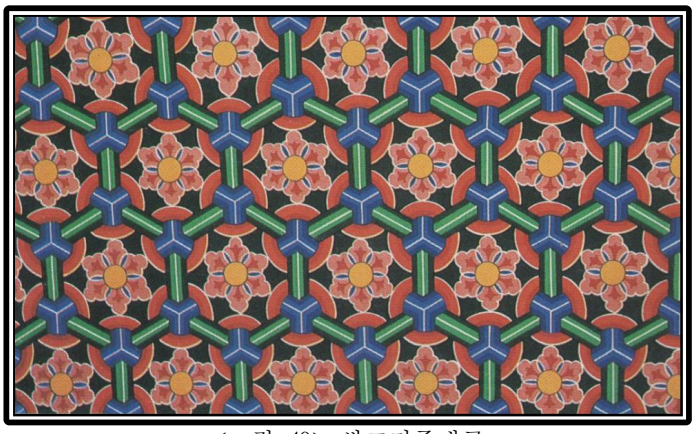
3) 금문양

금문양은 진귀하고 미려한 물체를 도안하거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다채롭게 채색한 것이다. 금문양은 별화가 놓이는 부분, 즉 평방(平枋)·창방(昌枋)·도리(道里)·기둥머리 등의 양쪽 끝에 머리초를 넣고 그 중심 부분에 놓이기도 하고 부연개판, 연목, 부연, 공포와 부분적이지만 천정개판 등에도 그려진다. 금문양에는 대소의 원형, 3각형, 6각형 등 기하학적인 곡선과 직선 형태들을 서로 꿰고 묶어서 그것을 연속 반복하는 형식의 문양과 진귀한 물체들을 조화시켜 도안화한 릉화 문양 형식의 비단과 같은 문양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21] <그림 39> 삼지창금(三枝槍錦) 건축무늬나 불교미술에서 쓰여지는 무늬로 세 갈래로 된 창(槍)무늬를 연결시켜 이루어진 비단무늬의 일종이다. <그림 40> 쌍고리줏대금은 비스듬한 줏대로 꿰맨 듯이, 겹으로 된 고리의 문양을 말한다. <그림 41> 십자금문(十字錦紋) 십자 모양으로 연속시켜 이루어진 비단무늬이다. <그림 42> 솟을줏대금은 '솟을' 솟아있는 모양의 무늬라는 순수 우리말이며, 육각, 삼각형의 무늬가 원형과 연속된 모양의 비단 무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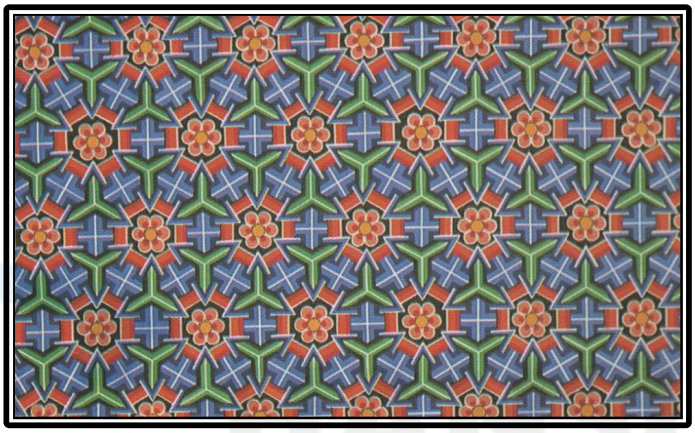


<그림 39> 삼지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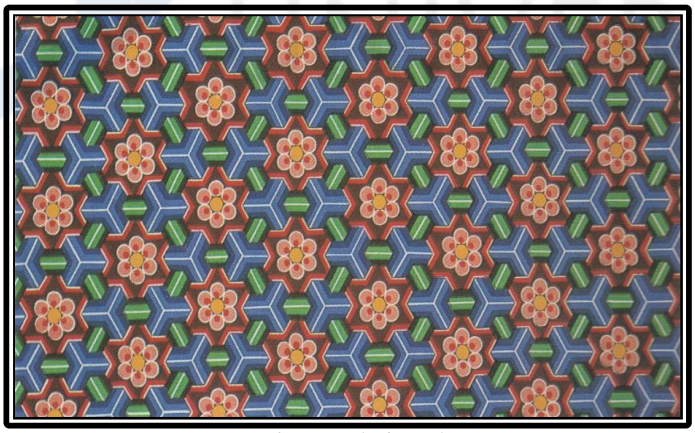
21) 이수진(2010), 「고대단청(古代丹靑)의 조형양식에 관한 연구」, 서경대 조형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그림 40> 쌍고리줏대금



<그림 41> 십자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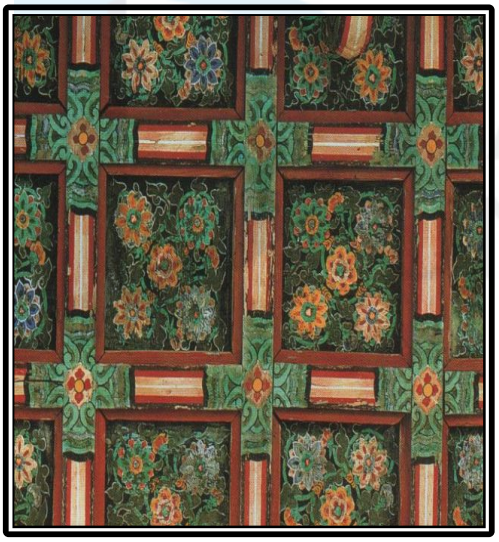


<그림 42> 솟을줏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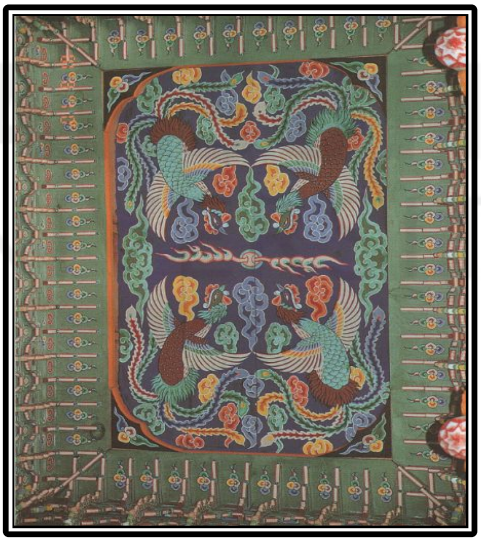
<그림 39~42> 임영주(1991), 『단청』, 서울 : 대원사, pp.83~84.

4) 천정문양

천정문양은 천정에 판재를 올린 우물천정의 경우 이곳에 도안 문양을 그렸을 때 불리는 명칭이다. 우물천정의 경우 반드시 천정판에는 문양을 그려 넣으며 이들 문양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문양을 그리는 것이 통례이다. 화초 또는 동물을 단독으로 도안하거나 기하문 또는 기타 문양을 한 구획 안에 단독으로 넣는 것이다. 우물반자의 격간(格間), 궁창(문의 밑에 댄 널), 구리대(착고) 또는 개판의 일부에 주로 쓰이며 건축부재의 부리(마구리)에 쓰이기도 한다. 사찰의 우물반자에는 주로 연꽃무늬와 보상화무늬 등이 쓰이고 궁전건물에는 용, 봉, 학 등과 길상을 뜻하는 쌍희자(雙喜字)·수복(壽福), 또는 강녕(寧康) 등의 글자를 도안하여 썼다.[22] <그림 43>은 창경궁 명정전 천장에 그려진 문양으로 반자에는 깨달은 마음의 청정을 상징하는 다섯 송이의 연화와 줄기, 잎, 연봉이 그려져 있다. <그림 44>은 송광사 대웅보전 보개천장의 문양으로 길상과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이 그려져 있다.



<그림 43> 창경궁 명정전 천장
곽동해(2002), 『한국의 단청』, 서울 : 학연문화사, p.49.



<그림 44> 송광사 대웅보전 보개천장
신영훈, 한석성(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서울 : 현암사, p.237.

22) 이명은(2002), 「한국 전통미술의 퓨전화 현상에 관한 연구 : 불교 단청미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제 3 절 건물의 성격에 따른 구분
(불교사찰, 궁궐, 향교와 서원)

1. 사찰 건축의 단청

사찰은 불교적 성격을 띠는 건축의 모임체로서 그곳에는 신앙의 대상인 불, 보살상을 모시게 된다. 따라서 궁궐 건축과는 달리 권위를 나타내기 보다는 존중의 대상으로서 신앙심을 북돋워 주는데 훨씬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봉안되어 있는 불, 보살상을 장엄하고 종교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문양과 색채를 구사하여 호화로우면서도 기품있는 단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찰 건축의 단청은 고려시대 단청을 계승 발전시켜 창의적인 단청을 구사하며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점차 허례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보다 형식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띠게 된다. 대체로 연화문을 비롯하여 휘채색 금단청 등이 주를 이루며, 별지화의 경우 주로 용, 기린, 봉황, 말, 사자, 학 등 상서로운 동물이 그려진다. 그리고 천정문양은 연화문과 보상화문이 주를 이룬다.[23)]

<그림 45>인 동화사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전각이며, 칠성신은 예부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가람을 수호한다고 전해지는 신이다. 동화사 칠성각에는 철종8년(1857)에 그려진 삼존불 양식의 칠성탱이 봉안되어 있으며, 동화사 칠성각 단청 <그림 46>은 화려한 색감을 사용해, 별지화의 봉황을 그렸으며, 천정문양은 연화문과 보상화문을 그려, 전형적인 사찰 단청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23) 박수정(2007), 「한국 사찰 단청의 조형요소에 관한 고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그림 45>사찰의 단청(동화사 칠성각 전경)

http://www.panoramio.com/photo/16254449

<그림 46> 사찰의 단청(동화사 칠성각 단청)

http://sobulmo.tistory.com/entry/

2. 궁궐 및 관아 건축의 단청

조선시대 궁궐과 관아 건축은 사찰 건축과는 다른 제왕의 권위와 웅장한 기풍 표현을 위주로 하는 만큼, 단청 역시 사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화문양 등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대신에 파련화난 주화 계통의 안온하고 호화로운 문양과 색채를 애용하게 된다. 궁궐 건축에서는 별지화를 그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천정문양도 주로용과 봉화, 학 등을 쌍으로 도안화한 것과 쌍희자, 복자, 수자 등을 도식화하여 그려 넣는다.[24]

<그림 47>인 경복궁 근정전은 상·하층이 외삼출목(外三出目), 내사출목(內四出目)이며, 내출목에서는 수설(垂舌)이나 앙설(仰舌)이 구름무늬처럼 새겨진 운궁(雲宮)으로 조화를 이뤄 단청의 호화로운 문양과 색채를 통해 화려한 장식적 효과를 내며, 전체적으로 장식적 의장(意匠)을 마음껏 담고 있는 조선 말기 건축의 정수라 할 수 있고, 당시 건축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경복궁 근정전의 단청 <그림 48>은 제왕의 권위와 웅장한 기풍 표현을 위주로 하는 만큼, 연화문양과 구름을 형상화해 평온하면서도 호화로운 문양과 색채를 통해 궁궐 단청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HANSUNG UNIVERSITY

24) 김태현(2007), 「조선시대 궁궐 단청이미지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패션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그림 47> 궁궐의 단청(경복궁 근정전 전경)
http://www.photowang.net

<그림 48> 궁궐의 단청 (경복궁 근정전 단청)
http://www.photowang.net

3. 유교 건축(향교, 서원)의 단청

유교 건축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묘를 비롯하여 문중의 선열과 선현의 묘당, 선조를 모신 가묘, 제실, 제각, 그리고 이른바 교육기관 역할의 문묘, 서원, 향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건물들은 검소와 검약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고상한 기품과 겸양의 미덕 표현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유교 건축의 단청 역시 성격에 걸맞게 건실하면서도 고상한 성전으로서의 격을 나타내고자 긋기단청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간혹은 의례적인 정신을 강조하기위하여 간단한 모로 단청을 시행하기도 한다.[25)]

<그림 49>인 광주향교는 1398년(태조 7)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의 교육과 백성의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지만, 정유재란 때 불타버렸고, 현재 건물은 후에 중건(重建)한 것이며, 광주 향교의 단청 <그림 50>은 유교적 이념인 검소와 검약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긋기단청으로 절제의 미를 표현한 대표적인 유교 건축의 단청으로서 건물의 용도에 맞는 단청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HANSUNG UNIVERSITY

25) 한은주, 김영인(2005), 「한국 단청의 색채와 이미지의 현대적 활용」, 한국색채학회 동계학술대회 보고서, p.31.

<그림 49>향교의 단청(광주향교 전경)
http://www.ipost.kr/stock_detail_plain

<그림 50>향교 단청(광주향교 단청)
http://www.ipost.kr/stock_detail_plain

제 4 절 단청문양을 디자인에 접목한 사례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단청문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청의 다양한 색채감과 문양 구성을 접목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단청문양을 디자인에 응용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단청문양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단청문양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한국의 단청문양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문양과 색채로서 민족성과 생활상, 민족 고유의 감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이미지를 살린 전통성을 현대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한국적인 디자인 가능성을 재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조형미와 상징성을 내포한 단청문양을 모티브로 하며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응용한 사례를 알아본다.

1) 단청문양에 나타난 아트메이크업 특징

단청문양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은 인체를 통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있다. 단청문양과 색채를 인체에 도입하여 이질감 없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소재, 기법, 색상 등을 조화시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단청문양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상징성을 꼽을 수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주제를 암시하거나 표현해주며 관객으로 하여금 시각적 인지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깨닫게 해 준다. 이러한 상징성은 작가와 관객 사이를 오가며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아트메이크업은 어떤 특별한 쇼나 행사의 상징이나 은유가 되기도 하며 행사를 위한 아트메이크업은 그 행사나 쇼가 대부분 각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는 페인팅을 하게 된다.

둘째,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성을 들 수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인체위에 직접적으로 기르는 예술로서 창의적이고 인체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며, 인체와 의상 혹은 인체와 공간적 상황이 어우러져 미적인 조형감을 이룰 수 있다. 아티스트가 회화적인 목적으로 인체를 접하게되면 이미 인체는 하나의 캔버스가 된다. 이렇게 인체와 조화를 이루는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성은 관객에게 미적인 조형언어가 되고,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셋째, 단청문양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작가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시각적 언어 기능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소로 관객이 보는 순간 작가의 주제나 표현하고자 바를 느낄 수 있다. 소재의 디자인이나 잘 계획된 색채의 사용으로 작가와 관객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단청문양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시각적인 언어기능을 통해 실제언어의 기능과 견줄 수 있는 호소력 강한 도구이며,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청문양은 작품 <그림 51>, <그림 52>처럼 봉황문, 수파문, 귀갑문 등을 모티브로 한 조형요소들을 응용해 한국의 전통 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26]

26) 장혜선(2010), 「한국 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8-101.

<그림 51> 봉황문

<그림 52> 수파문, 귀갑문

2) 단청문양을 활용한 니트 디자인

단청문양을 활용한 니트 디자인은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접목시켜 전통의 현대화와 한국적인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다. 단청문양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해 모티브를 가져와 형태를 단순화, 확대, 반복, 강조 등을 시켜 단위 모양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했다. 이를 응용하여 실용적이며 예술적 가치를 겸비한 고부가가치의 니트 디자인을 개발한 사례다.

단청문양을 활용한 니트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단청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에 부합하도록 형태를 단순화, 양식화함으로서 실용성을 갖춘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접목시켰다. 둘째, 단청문양의 독창적인 형태와 색채를 다양한 조합과 재구성을 통해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갖고, 명도와 채도 변화가 다양한 단청은 다채로운 색채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색채의 사용이 가능한 니트 디자인은 문양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 단청의

문양과 색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이 중에서도 인타샤 기법은 편물의 두께가 얇아 편안한 착용감을 주고, 고급제품에 많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전통문양의 활용은 우리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세계무대에서 차별화되면서 한국 패션 문화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처럼 단청문양을 니트 디자인에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53>은 연화머리초로, 머리초의 특정 부분을 생략, 강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작품은 머리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연화머리초로 주문양의 핵심에 연꽃을 장식한 것을 모티브로 단청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였다. 연꽃, 석류 등 항아리의 형태미에 초점을 두고 크기 변화를 시켜 연화머리초의 형태미를 강조했다.

<그림 54>는 연화문의 연잎 색을 변형 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고자 한 작품으로 연잎을 모티브로 오렌지와 다크 오렌지의 두 가지 톤으로 나타내어 입체미를 줬다. 연잎의 형태미를 곡선 느낌과 면 분할의 변화를 주어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림 55>은 보상화문의 연꽃과 줄기 그리고 잎의 율동성을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미를 응용하여 미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를 충족시키면서 그린과 오렌지 컬러로 강한 색상대비를 주었다.

<그림 56>은 녹화문을 표현한 것으로 곱팽이 문양이 좌우 대칭으로 됐으며, 곱팽이 문양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나뭇잎이 나선형으로 감겨든 곱팽이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같은 크기의 문양을 반복시키고, 매화점을 중간에 배치하여 녹화문의 형태미를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 전달하고자 하였다.[27]

27) 이지은(2008), 전게논문, pp.75-116.

<그림 53> 머리초 연화문

<그림 54> 포벽초 연화문

<그림 55> 궁창초 보상화문

<그림 56> 부리초 녹화문

제 4 장 작품 제작

제 1 절 단청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제작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보물'은 건조물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본 연구의 소재인 목조건축물의 경우, 고려시대 건물은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조선시대 건물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체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시대 건물은 보물 지정 대상이다. 고려시대 국보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는 현재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있지만, 이들 건축물들은 고려시대 단청의 특징인 녹색 등 원색 사용이 많아 바디페인팅의 시각적 예술 가치는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밝고 화려하며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는 조선시대 단청문양을 작품제작 요소로 응용했고, 이 중에서도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바디페인팅 요소로서 시각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찰의 단청문양을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1. 작품-1 봉명조양(鳳鳴朝陽)

1) 작품제작 의도

정수사 법당 <그림 58>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정수사에 있는 조선 초기의 목조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 건물이다. 이 법당은 1424년(세종 6)에 창건되었다. 정수사 법당의 단청은 창방, 도리 등의 부재 양 끝에 연화머리초를 넣은 모로단청으로 공포에 연꽃 조적을 새긴 후 칠을 하여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예술적 가치가 높다.

<그림 59>은 정수사 법당의 단청인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과 깨달은 마음과 청정을 상징하는 연꽃이 있는 부분의 상징문양을 메인 모티브로하여 바디페인팅의 패턴으로 활용해 예술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작품 제작과정

(1) 보물 161호로 지정된 사찰인 정수사 법당 단청의 특징적인 모티브로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과 깨달은 마음의 청정을 상징하는 연꽃을 주 모티브로 응용하여 <그림 60>의 일러스트를 제작한다.
(2) 바디페인팅용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상징적인 의미의 모티브인 봉황과 연꽃을 바디에 표현하고, 채색은 밝은 등황색의 봉황을 표현한다. 바탕색은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한 검정색으로 채색하여 명도를 높여 단청의 모티브를 선명하고 화려하게 표현한다.
(3) 봉황과 연꽃의 모티브의 연결을 위해 긋기단청과 연잎의 문양들을 부분적으로 연결하여 그려주어 표현한다.
(4) 채색은 명도를 조절하거나 둘 이상의 색을 섞어 간색을 만들어 사용하며, 다른 색계열 사이에는 검정색의 선을 넣어 색의 강조와 색상대비의 조화를 표현한다.
(5) <그림 57>은 쓰여진 색상의 빈도수가 많은 좌측부터 작은 우측의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57> 색상

<그림 58> 정수사 법당 전경
http://www.cha.go.kr

<그림 59> 정수사 법당 단청
http://blog.naver.com/jetwet/90035581657

<그림 60> 일러스트	<작품 1> 봉명조양 뒷면

<작품 1> 봉명조양 앞면

2. 작품-2 조양봉황(朝陽鳳凰)

1) 작품제작 의도

석남사 영산전<그림 62>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이며 신라 문무왕 때 지은 절로서 고려 광종 때(944)에 중건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다시 건축되었다. 건물은 안팎의 공포(栱包)가 다 같이 이출목(二出目)이고, 각간에 1구씩 공간포(空間包)가 짜여져 있다. 외부 쇠서(牛舌)는 끝이 짧고 밑으로 처져 조선 전기에서 중기 사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단청은 천정과 벽의 경계부분에 그려진 황금색의 봉황을 이미지화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63>은 단청의 특징인 천정과 벽의 경계부분에 그려진 황금색의 봉황을 이미지화해 재해석하고, 단순화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작품제작과정

(1) 보물 823호로 지정된 사찰인 석남사 영산전 단청의 특징적인 모티브로 천정과 벽의 경계부분에 그려진 황금색의 봉황을 이미지화 하고, 불화, 길상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한다. <그림 63>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그림 64>의 일러스트를 제작한다.

(2) 바디페인팅용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단청의 기본요소인 덩굴무늬와 중국 당나라 때부터 흔히 사용된 보상화를 주제로 부리초를 포인트화하여 표현하고, 상체의 배경색인 초록을 다리쪽의 주홍색과 연결하여 보색대비로 채색한다.

(3) 배경색이 마르고 난 뒤 포크아트기법인 콤마 스트로크 기법을 이용하여 천정과 벽의 경계부분에 그려진 황금색의 봉황을 이미지화한 모티브를 그려준다. 별지화인 뒷부분은 끝없는 불심을 상징하는 노란 옷을 입은 부처를 등쪽 부분에 표현하고, 덩굴줄기와 보상화, 부리초로 포인트화 한다.

(4) 황금색의 봉황을 이미지화하여 재해석하고, 단순화하여 사실적으로 표

현하고자 한다. 채색은 경쾌한 느낌으로 순색과 보색을 사용하고, <그림 61>은 쓰여진 색상의 빈도수가 많은 좌측부터 작은 우측의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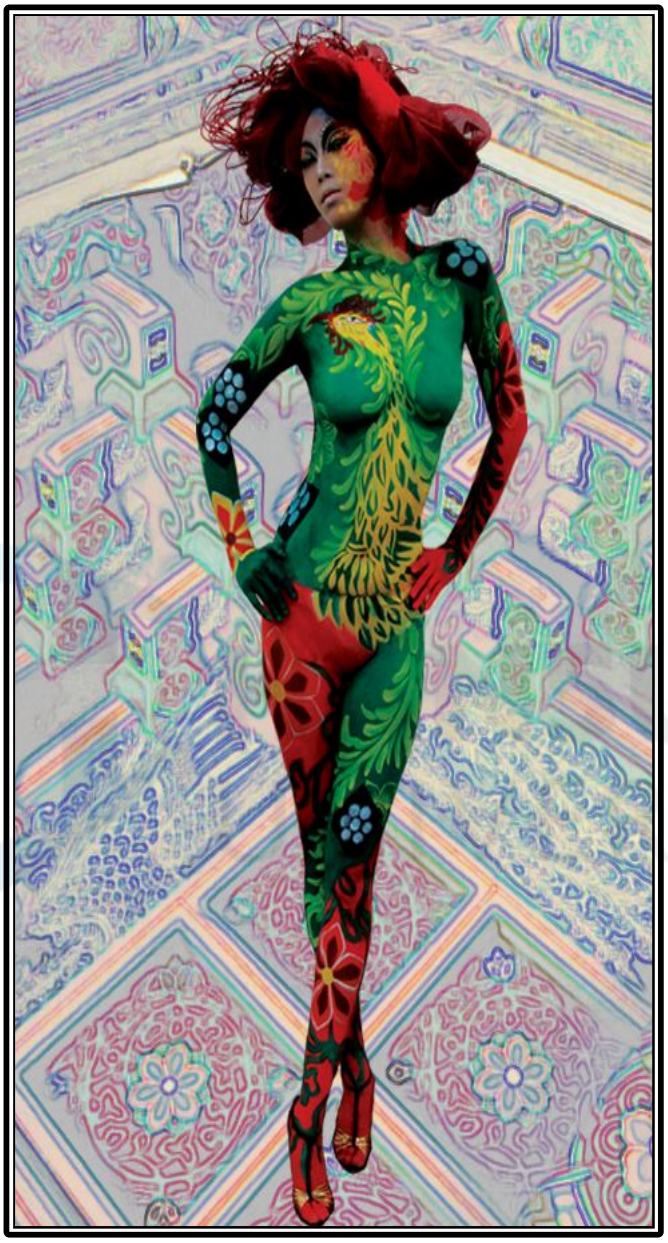
<그림 61> 색상

<그림 62> 석남사 영산전 전경
http://www.cha.go.kr

<그림 63> 석남사 영산전 단청
임영주(1991), 『단청』, 서울 : 대원사, p.110.

<그림 64> 일러스트	<작품 2> 조양봉황 뒷면

<작품 2> 조양봉황 앞면



3. 작품-3 패옥(佩玉)

1) 작품제작 의도

금산사 대장전<그림 66>은 백제 법왕(600)때 세운 절이라고 전해지며, 조선 인조 13년(1635)에 다시 지었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3칸의 크기이며,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공포는 기둥 윗부분에 장식하여 지붕 처마를 받치는 부분으로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며, 탑 형식의 목조 건축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문화재이다. 당초무늬는 덩굴 줄기가 뻗어 나가는 무늬로 반복적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을 가지며, 이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최대의 길상을 나타내는 불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금산사 대장전은 목조 건축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문화재이다.

<그림 67>은 금산사 대장전의 다포 양식 부분을 모티브로 해 포도당초무늬의 덩굴줄기문양을 연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붉은색과 초록색의 보색대비를 통한 동양적인 색채를 바디페인팅의 패턴으로 활용해 예술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작품제작과정

(1) 보물 827호로 지정된 사찰인 금산사 대장전단청의 특징적인 모티브로 당초무늬가 연꽃 조각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하고, 당초무늬는 덩굴 줄기가 뻗어 나가는 무늬로 웅건한 균형과 짜임새가 있으며, 포도당초는 불교에서 만사형통과 부귀, 장수를 의미하는 단청이다. <그림 67>을 응용 모티브로하여 <그림 68>의 일러스트로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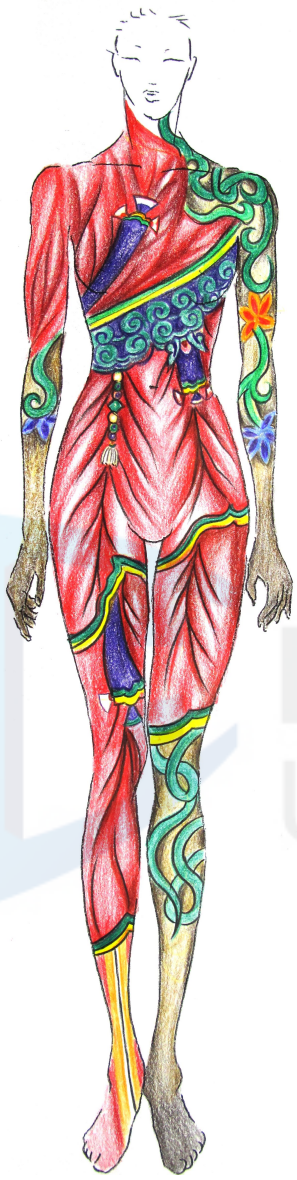
(2) 기둥을 감싸고 있는 한복 치마폭과 노리개를 모티브로 표현한다. 다리와 어깨, 팔, 얼굴은 기둥에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단청인 덩굴 줄기가 뻗어 올라가 꽃을 피운 듯한 느낌의 모티브를 표현한다. 뒷부분은 앞부분과 연결된 모티브를 치마폭과 노리개, 덩굴 줄기를 앞쪽과 연결해 표현한다.

(3) 붉은색과 초록의 보색대비의 동양적인 강한 채색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찰 기둥의 색인 진한 브라운으로 채색한다. 회화적 기법을 사용하고 모티브의 연결을 위해 단청의 기본요소인 기하학적 문양들을 부분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65>은 작품-3인 패옥(佩玉)을 제작할 때 쓰여진 색상의 빈도수가 많은 좌측부터 작은 우측의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65> 색상

<그림 66> 금산사 대장전 전경
http://www.cha.go.kr

<그림 67> 금산사 대장전 단청
신영훈. 한석성(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서울 : 현암사, p.13.

<그림 68>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3> 패옥 뒷면
	

<작품 3> 패옥 앞면

4. 작품 -4 요발(鐃鈸)

1) 작품제작 의도

내소사<그림 70>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세운 절이다. 지금의 사찰은 조선 인조 11년(1633) 청민대사가 절을 고칠 때 지은 것이다. 내소사 대웅보전의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짜놓은 장식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다. 또 기둥 끝에 달린 꽃무늬 조각상은 당시의 뛰어난 조각 솜씨를 엿볼 수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 양식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건물이다. 특히,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단청문양 중 별지화가 특징적이다.

<그림 71>은 보물 291호인 내소사 대웅보전 단청의 특징인 별지화로 그려진 악기의 모티브를 응용하여 장식성을 극대화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함으로서 동양적 바디페인팅의 예술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작품제작과정

(1) 보물 291호로 지정된 사찰인 내소사 대웅보전 단청인 별지화로 그려진 악기의 특징을 모티브로 삼아 바디에 표현한다. <그림 71>을 응용 모티브로하여 <그림 72>의 일러스트를 제작한다.

(2) 바디페인팅용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일러스트한 도안대로 해금을 가슴쪽에 표현하고 오른쪽팔과 왼쪽 다리에는 머리초 모티브를 표현한다. 왼쪽팔과 오른쪽 다리는 별지화 윗 공간의 단청 모티브인 검정색 라인으로 표현한다. 가슴 옆쪽은 전통 악기인 비파의 앞머리 부분을 표현하고, 다리쪽은 붉은색 끈과 흰색의 끈으로 연결되어진 전통악기인 자바라를 표현한다.

(3) 보물 291호로 지정된 내소사 대웅보전의 특징인 별지화로 그려진 악기를 곡선적인 실루엣의 바디에 표현하고, 긋기단청과 머리초로 연결한다.

<그림 69>는 요발(鐃鈸)이라는 작품을 제작할 때 쓰여진 색상의 빈도수가 많은 좌측부터 작은 우측의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69> 색상

<그림 70> 내소사 대웅보전 전경
http://www.cha.go.kr

<그림 71> 내소사 대웅보전 단청
신영훈, 한석성(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서울 : 현암사, p.10.

<그림 72> 일러스트	< 작품 4> 요발 앞면

<작품 4> 요발 뒷면

제 5 장 결 론

현대에 있어서 전통은 민족의 동질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문화적 역량을 세계적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예술 작품에 있어 전통적인 미적 특징을 찾아내는 것은 문화 주체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 예술 또한 오늘날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인 작품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전통은 새로운 모티브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현대의 바디페인팅은 디자인, 색채, 조형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로서 전통 문양을 통해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작품을 시도하는 것은 독창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단청문양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문양과 색채로서 민족성과 생활상, 민족 고유의 감각을 나타내며, 바디페인팅의 요소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청 문양을 한국적 이미지로 살려 새로운 모티브로 제시하고, 단청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제시해 독특한 우리의 미의식을 바다페인팅 작품에 응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며 바디페인팅의 배경과 역사를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바디페인팅의 의의와 역사에 대해 살펴봤다. 바디페인팅 유형을 그 동안 발표된 작품의 숫자와 작품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분류해 살펴본 후 바디페인팅의 평면적인 회화적 색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기법을 선행 연구 사례와 문헌 고찰을 통해 조사했다. 이를 통해 바디페인팅 작품을 단청에 응용하기 위해 단청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본 후 단청 문양의 기본 요소와 종류 등을 참고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봤다. 또, 단청 문양을 접목한 디자인 사례를 알아봄으로서 단청 문양의 응용 가치를 평가하고, 본 연구의 과제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단청 문양을 이용해 바디페인팅 작품을 제작했다. 제한점으로는 인체의 입체적 특성과 인체의 움직임, 그리고 곡선이 흐름에 따라 단청 문양의 사실성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문양만을 제한적으로 응용해 폭넓고 다양한 단청 문양을 작품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한국 전통 건축물의 단청 문양을 바디페인팅에 접목함으로서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고, 한국의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세계무대에서 차별화되면서 우리나라 바디페인팅 예술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단청 문양의 독창적인 형태와 색채는 다양한 조합과 재구성을 통해 무한한 디자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디페인팅의 새로운 작품 아이디어로 제시될 수 있었다.

셋째, 단청의 강렬하고 풍부한 색채는 명도와 채도 변화를 통해 다양한 색조 변화가 가능하며 바디페인팅의 다채로운 색채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단청이 주는 화려한 색채와 표현력 그리고 독특한 조형미는 한국적이면서 동양적인 이미지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표현기법과 단청의 디자인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 바디페인팅 작업에 시도하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도 주목받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만의 특징적인 소재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하며, 바디페인팅의 한국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통의 미를 응용할 수 있는 독창성과 창의적인 표현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곽동해,『한국의 단청』, 서울 : 학연문화사, 2002.

김동현, 『단청의 역사와 시공』, 서울 : 공간사, 1976.

_____,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서울 : 발언, 1995.

신영훈.한석성,『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단청』, 서울 : 현암사, 2004.

임영주, 『단청』, 서울 : 대원사, 1991.

윤장섭, 『한국건축사』, 서울 : 동명사, 1973.

장기인・한석성, 『한국건축대계Ⅲ(단청)』, 서울 : 보성문화사, 1997.

한명숙, 『The Body Art』, 서울 : 청구문화사, 2006.

2. 학위논문

김갑연, 「한국 사찰에 나타난 단청문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범대학원, 1995.

김금란,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 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태현, 「조선시대 궁궐 단청이미지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패션디자인대학원, 2007.

박수정, 「한국 사찰 단청의 조형요소에 관한 고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원, 2007.

박혜선, 「조선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송원길,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연구 :바디아트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송연호, 「우리 나라 단청문양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1984.
이지은, 「한국사찰 단청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연구: 인타샤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패션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명은, 「한국 전통미술의 퓨전화 현상에 관한 연구 :불교 단청미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 대학원, 2002.
정지윤, 「단청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머리초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사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장혜선, 「한국 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예술대학원, 2010.
최성민,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응용한 Body painting 연구」,
대구대학교 사진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 학술지

김금란, 「바디페인팅의 국내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2008.
한은주. 김영인, 「한국 단청의 색채와 이미지의 현대적 활용」,
『한국색채학회 동계학술대회 보고서』, 2005.

4.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csoomin/40111906088
http://blog.naver.com/dkdbfpel/50071585012
http://blog.naver.com/hellosmile79/18616365
http://blog.naver.com/jetwet/90035581657

http://cafe.naver.com/l43members/117527http://cafe.naver.com/fzine/2748
http://cafe.naver.com/hs3133/
http://cafe.naver.com/livejob/218283
http:// www.bodypainting-festival.com
http://www.cha.go.kr
http://www.haring.com
http://www.ipost.kr/stock_detail_plain
http://www.panoramio.com/photo/16254449
http://www.photowang.net
http://sobulmo.tistory.com/entry/

HANSUNG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Body Painting Works applied Dancheong Patterns.

-Focused on Dancheong patterns which appear in the Temple assigned as National Treasure-

Hwang, Ju You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raditional pattern is symbolic of custom and sentiment for each era public. These traditional patterns have been carried as the universal national aesthetic. Today's traditional patterns have established their homogeneity and identity. In addition, it would be used as the creative art works to demonstrate the national cultural capabilities to the world.

In this respect, we have studied the Dancheong patterns which reflected art with our national emotion and aesthetics. It is great meaning that the artistic value of Dancheong patterns combines into the body painting.

Accordingly, this study is newly proposing the body painting art as traditional image. Body painting works were made by our unique aesthetics, which expresses Dancheong with creative ideas.

For the start, it is in the research method used that we have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body painting after reviewing the background and history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body painting, and then classified the body painting type by a standard of the published works quantity and their representation.

Until now, after surveying the body painting's expression technique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 cases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we have reviewed the concept and history of Dancheong to apply it to the body painting. The basic elements and sorts of Dancheong patterns have been classified by the references and preceding research. We evaluated an applied value of Dancheong patterns through the research of the design cases which combined Dancheong patterns.

The body painting works in this research subject were made of using Dancheong patterns which appear on the architecture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assets. The four kinds of works designed include: Jeongsusa the hall (Treasure No. 161), Seoknamsa Youngsanjeon (Treasure No. 823), Naesosa Daeungbojeon (Treasure No. 291) and Geumsansa Daejangjeon (Treasure No. 827). Dancheong of these temples expresses the religious patterns and colours. It shows a luxury but elegant feature well.

According to this research, first, it was able to enhance the dignity and self-conceit about traditional culture by combining Dancheong patterns of Korea traditional architecture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assets to body painting.

It will be expanded into the field which can express the originality and creativity of our differentiated body painting art in the world. Second, the creative types and colour of Dancheong patterns which has infinite design possibilities through a variety combination and reorganization could be proposed as a new works idea of body painting. Third, Dancheong's strong and abundant colour is possible for a change of various colours depending on brightness and chroma change. And it was really suited to express a colourful image of body painting.

Finally, through this study, Korea's body painting works should be expanded into creative expression field which can apply the traditional beauty in order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originality of our body painting in the world. Moreover, to suggest various ideas through reinterpretation, improvement and harmony of tradition will become motivation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body painting art.

HANSUNG UNIVERSITY